



항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⑩ <끝>

가는 곳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

◆부촉유통(付觸流通)

대사께서는 712년 8월 3일에 돌아가셨다.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 고별하셨다. 7월에 신주 국은사에 탑을 조성하고 작별을 고했다.

“나는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그대들은 의심이 있으면 빨리 묻도록 해라. 그대들을 위해 의심을 깨우쳐 미혹을 다 없애고 그대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는 그대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리라.”

법해를 비롯하여 여러 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으나, 오직 신회만이 잠자코 있으며 슬피 울지도 않으니, 육조 대사께서 말했다.

“나이 어린 신회는 도리어 좋고 그들에 대해 평정함을 얻어서 험하고 칭찬함에 동요하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대들이 지금 슬피우는 것은 또한 누구를 위함인가? 나의 가는 곳을 그대들이 몰라서 근심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나 가는 곳을 모른다면 그대들에게 고별을 하였는가?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는 곳을 몰라서이니,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라.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애짐도 없으며 감(去)도 없고 음(來)도 없느니라. 내가 그대들에게 한 계승(傳頌)을

보게 하려 다시 ‘잡 부처를 보는 해탈의 노래(見眞佛解脫頌)’를 남기니, 미혹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깨달은 이는 바로 보느니라.”

“만약 뒷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오직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지니, 그러면 바로 능히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니, 본래로 중생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며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느니라.”

“그대들 문인들은 잘 있거라. 내가 계승 하나를 남기리니 ‘자성진불해탈승(自性眞佛解脫頌)’이라고 이름 하느니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들이 이 계승의 뜻을 들으면 바로 자기의 마음, 자기 성품의 참바탕을 보리라. 그대들에게 이 계승을 주면서 내 그대들과 작별하리라.”

법신과 보신, 화신불이여(法身報身及化身) 삼신이 이 몸과 더불어 하나인 것을(三身本來是一身)

마음 열어 스스로 성품 갖추면(若向性中能自見) 그 자리가 부처 이르는 바탕인 것을(卽是成佛菩提因)

“이제 그대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속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

위해서 입니. 종교와 신앙의 필요성 또한 괴로움을 떠난 즐거움의 추구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약속해 주는 메시아 대신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는 가르침 중심의 종교입니다. 색신(色身)과 법신(法身)이 둘이 아니요, 예토(穢土)와 정토(淨土)가 둘이 아니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해능 선사는 <육조단경> 첫 시작에서 마지막장에 이르기까지 열린 진리를 펴 보이고 있습니다.

<육조단경>에는 진리의 세계가 널리 있습니다. 빛이 곧 어둠이요, 어둠이 곧 빛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요, 출가와 재가가 곧 둘이 아닌 하나임을 날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앉아서 놓지 못하고(生來坐不臥)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死去臥不坐) 송장이나 다름 바 없는 뼈덩이에서(一具臭骨頭) 어찌하여 깨달음을 얻으려 하라(何爲立功課)

부처님은 <잡아함경> <중아함경> 등을 통해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 제자들은 논리와 표현을 갖춰서 나의 가르침을 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쥘 주먹을 펴 보이는 것처럼 신도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말하라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극락세계가 멀지 않다고 말하며,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정토임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항상 눈앞에 자갈처럼 널려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킬도 하이도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내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사바세계 또는 정토의 극락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와서 볼 수 있는 내용만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하며, 행복과 자유로 인도될 수 있는 설법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조 스님의 진리를 알고, 내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라도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금생을 포기하려 합니까. 금생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조 스님도 지금 이 때가 황금기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해 하지 말며, 걱정을 미리 앞당겨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불을 한다던지, 참선을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인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적인 것입니다. 남은 생을 살면서 마음을 열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지 말라. 문은 항상 열린 채로 있느니라. 두드리려는 마음이 곧 하나의 마음을 만든다.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고 구하려 할수록 번뇌에 찬다.”

진정한 불교신앙의 목표는 바로 ‘날마다 좋은 날(日是好日)’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그림 · 김필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선(禪)의 역사는 연화미소(拈花微笑)로부터 비롯됩니다. 부처님이 설법 중에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일 때 많은 대중은 그 뜻을 몰라 잠자코 있었으나, 마하가 설만이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팔과 글로 전할 수 없는 진리의 심인(心印)을 가섭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화는 <대법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담겨 있습니다. 이 <대법천왕문불결의경>은 한역 <대장경>에도 끼여있지 않습니다.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의 경전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천왕문불결의경>은 학자들의 고증과 연구에 의해 위경(僞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천왕문불결의경>이 위경이든 아니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연화미소의 일화가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중생들에게 다함이 없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기록이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기록이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모아진 자료와 구전 등에 의해 쓰여 졌다면 더욱 본래의 색깔과는 사뭇 다른, 바래진 무늬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아함경>에 독화살에 관련된 일화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저것을 따지지 말고 우선 독화살을 제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친개가 멀리서 달려올 경우,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해야 합니다.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면, 잠이 깨면 호랑이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살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와서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축도생은 진리는 이 마음이며(法即是心) 이 마음은 곧 진리(心即是法)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거나 숨어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

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드러난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착의 병,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이 곧 부처요(心即是佛) 이 생활이 곧 진리(生法是道)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능 스님은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이며, 마음이 열리면 서있는 자리 그대로가 예토가 아닌 정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제 스님 또한 어느 곳에 있던 그대가 세상의 주인공이며 이르는 곳마다 다 진리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능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구절을 계승을 읊으셨습니다. 계승이 한 구절뿐인 것은 아마 해능 스님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 제자들과 후세의 중생들을 위해 계승을 읊는 스님의 모습이 눈에 보일듯 가슴이 아픕니다.

육조 해능은 이렇게 마지막 모습도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능 스님은 자유인이자 참사람이었으며, 그는 살아 있는 부처님이자 따뜻한 우리 모두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열반승(涅槃頌)을 남긴 후 단정히 앉아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1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는 죽지 않고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스님께서 76년 동안 세상에 머물다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대자유인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노래를 끝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차분히 의연하여 착함도 담지 않고(兀兀不修善) 막힘과 결핍 없이 악 또한 모르는 일(騰騰不造惡) 그혹하고 그혹하여 일체를 쉬려하며(寂寂斷見聞) 실오라기 하나에도 머물 없으려(蕩蕩心無着)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빛이 곧 어둠이요 어둠이 곧 빛이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요, 출가·재가는 하나이다

주노니 ‘진가동정계(眞假動靜攝)’니라. 그대들이 다 외워 이 계승의 뜻을 알면 그대들은 나와 더불어 같을 것이니, 계승을 의지해 수행해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衆學道人) 힘써 경계할 일 있으니(努力須意用) 대승의 큰문에 들어와서는(莫於大乘門) 생사의 지혜에 집착치 말라(却執生死智) 상좌인 법해가 앞으로 나와 여쭘다. “대사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법은 전해 마쳤으니 그대들은 다시 묻지 말아라. 내가 떠난 뒤 이십여 년에 샅된 법이 요란해 나의 종지를 흠란하게 할 것이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해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바로 나의 바른 법이니라. 그러므로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으리라.”

법해가 또 여쭙는다. “대사님은 뒷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부처님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들이 중생을 바로 알면 바로 능히 부처를 볼 것이니라. 만약 중생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만겁토록 부처를 찾지도 못하리라. 내가 지금 그대들로 하여금 중생을 바로 알아서 부처를

단을 받지 말며, 상복을 입지 말라. 그런 짓은 성인의 법이 아니며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던 때와 한가지로 모두 단정히 앉아서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면,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감(去)도 없고 음(來)도 없으며, 울음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어서 탄연(坦然)히 적정(寂靜)하면 이것이 큰 도(道)이니라.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한가지일 것이니.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그대들이 가르침을 어기면 내가 있을들이 이익이 없느니라.”

부촉유통(付觸流通)은 해능 스님께서 죽음에 임박해 여러 제자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능 선사는 수법제자들을 모아 놓고 법을 펴고 중생들을 교화함에 있어 양변(兩邊)을 떠나고 양변에 자유로운 즉리양변(卽離兩邊)을 강조합니다. 모양(相)에 집착하고 양변에 기울게 되면 험덕임과 흔들림만 더하게 됩니다. 눈·귀·코·입·몸·뜻의 여섯 개의 문을 통해 색깔·소리·냄새·맛·촉각·분별의 여섯 무늬가 넘나들며 백팔번뇌의 생명을 거둬하게 됩니다.

들숨이 날숨으로 이어지면 사람이요, 날숨이 들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송장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누구나 보다 나은 행복이 으뜸자리를 차지하기

세계 불교사에 매머드급 허리케인이 상륙한다

영산불교가 자신있게 내놓은 불서(佛書)의 초신성!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16세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 近刊

대행서점 종교서적 부문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열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도와 도강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연가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목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겉껍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계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 칙천무후,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자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펴려.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 III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IV권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시리즈 - 행복초대장 近刊**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